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본받아야 하나?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고결함이 군자와 같다는 뜻에서 매화, 국화, 난초, 대나무를 사군자(四君子)라 일컫고 있는데 선비의 성품이 고상하고 깨끗한 정신을 상징하기로는 파초만한 것도 없다 하겠다.

일찍이 당(唐)의 유명한 서예가였던 회소(懷素)는 가난해서 종이를 살 돈이 없어 정원에 파초를 심어 잎을 따서 그 위에 시를 적었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그 후 파초는 어려운 생활에서도 학문의 뜻을 버리지 않는 선비의 고결한 정신을 대변하게 되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참된 선비상(像)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한때 좌파 지성인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사회학자 벨(Daniel Bell)은 1960년 그의 저서인 「이데올로기의 종말(The End of Ideology)」에서 미국에서는 이데올로기가 설 땅을 완전히 잃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사회는 유럽과 달리 세계 각처에서 이주해 온 다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으로 평등한 일반인으로 유럽의 봉건적 귀족사회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벨과 보조를 같이 하였던 구좌파 지성인에는 글레이저(Nathan Glazer), 호웨(Irving Howe), 크리스톨(Irving Kristol) 등의 사회주의자가 있었으나 이들은 초기의 극좌적 마르크스주의에서 후에는 우익으로 선회를 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사회의 경제적 번영과 소련 사회의 허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를 역사의 반전(反轉)이라 부를 만한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소련이



붕괴한 지 25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좌경세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현상일까?

참사랑과 경외심

병자호란의 외증에서 일어났던 척화론(斥和論)과 화친론(和親論)의 논쟁을 잊을 수 없다.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와 조정의 대신들은 식량이 바닥나고 추위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최명길(崔鳴吉)은 청 태종에게 화친을 청하는 국서(항복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화친을 끝까지 반대했던 김상헌(金尙憲)은 최명길이 국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그에게 달려가 “어찌 오랑캐에 무릎을 꿇겠느냐?”고 호통치면서 작성중인 국서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최명길은 김상헌을 한참 쳐다보고는 낙루하면서 “찢는 사람도 옳고 줍는 사람도 옳다”(裂之者可, 拾之者可)면서 찢긴 국서를 다시 주어 이를 정리하였다.

이른바 양시론(兩是論)으로 유명해 진 이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청의 볼모로 끌려간 심양에서 우연히 만났다. 서로 껴안고 눈물만 흘렸다는 노대신들의 심회가 어떠했을까?

시성(詩聖) 괴테는 “나는 정직하다고 맹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하다고 맹세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어떤 작품이나 창작자에 대해 평가하는 모든 사람이 지니는 무거운 책임감을 상기시키는 이 괴테의 말은 참으로 우리가 경청할 경구라고 생각된다.

괴테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어떤 글이나 행동에 대해 논하고자 할 때 애정 어린 관심이나 다소 편파적일 수 있는 열광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그 언급은 그리 가치가 없다.”면서 경외(敬畏)와 사랑을 강조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참사랑과 경외심을 찾기 힘든 것은 무슨 까닭일까?

사회적 · 과학적 합리성

이탈리아의 노동운동가인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는 그의 좌파적인 노동운동이 원인이 되어 1979년 4월 체포되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가 오늘



에도 많은 지식인에게 회자되고 있다.

그는 마르크스가 국왕 살해(Regicide) 전략을 실천에 옮긴 펠리체 오르시니(Felice Orsini)에게 경의를 표했지만 자신은 테러리즘과의 싸움은 진정한 대중적 정치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변했던 것이다. 진정한 지성은 그것이 좌파적이거나 우파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그의 논리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오르시니는 이탈리아의 혁명가로 나폴레옹 3세를 이탈리아 독립운동의 장애물로 판단, 암살하기로 결심하여 1858년 1월 17일 그 행렬에 폭탄을 투척했으나 실패해 사형되었던 인물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네그리의 노동 자율 운동인 ‘아우토노미아(Autonomia)’ 정신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자연과학은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즉 학문의 대상인 객체에 대하여 선악의 판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의 본성이다.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 위치, 역할, 정체성 등의 관계로 이루어진 가치부과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것의 의미와 중요성은 언제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등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포함하게 된다.

자연과학은 실험과 관찰을 으뜸의 방법으로 삼는다. 반면에 사회과학은 개념적 추상화를 통한 개념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리성 없는 자연과학

의 이론은 공허하고,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과학은 맹목적이 아닐까?

치국 이념

천하를 통일한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은 강소성의 작은 마을인 패(沛)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농사가 싫어 가출한 그는 무리를 이루어 술과 싸움으로 소일했으며 한때는 군도(群盜)의 수령 노릇을 하기도 했는데, 유생(儒生)을 보면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모자를 벗겨 오줌을 싸기도 했다.

그런 유방이 후일 초(楚)의 항우와 여러 차례의 결전에서 승리하여 대제국을 이룬 배경에는 적재적소로 인물을 기용했기 때문이다. 황제에 오른 유방은 덕치주의를 채택, 피폐해진 백성을 위무했고, 군국제를 실시하여 제국의 위용을 세웠으며 치국(治國)의 이념으로 유학을 장려했다.

유방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제례작악(制禮作樂)과 함께 나라를 다스림에는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가 지도자들은 인재 등용에 있어서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떤 치국 이념을 갖고 있을까? 🍵